

물 분쟁의 시대…기후변화에 다가오는 대혼란

갈증의 대가

캐런 파이프 지음

남아공 넬슨 만델라는 1994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빵, 물과 소금을 줘시다”라고 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세계 최초로 모든 사람은 충분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요구(물 접근권)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남미 볼리비아 역시 2000년 “물은 모든 차원의 정부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공공 신탁이며, 따라서 상품화 사유화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반면 1992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물과 환경회의’에서는 “물은 경합하는 모든 용도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경제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물을 ‘인간의 권리’로 정의하는 측과 사유화해 ‘경제재’로 정의하는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6년 뉴욕타임스가 ‘목마른 건 돈이 된다’는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물유기에 대해 다뤘다. 이처럼 20세기가 석유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과 관련한 분쟁의 시대를 예고한다.

미국 미주리대 캐런 파이프 교수는 물이 부족한 분쟁지대와 글로벌 물 기업들이 물을 사유화한 6개국 10개국을 7년간 돌아보며 ‘갈증의 대가’를 썼다. ‘글로벌 물 불평등과 다가오는 대혼란’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크게 ▲남북



물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권리’이다. 하지만 글로벌 물 기업에게는 이윤을 내는 ‘경제재’이다. 그래서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들의 대가는 사회적 소요와 질병, 환경악화 등이다. 사진은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농토.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메리카의 물을 둘러싼 책략 ▲탈식민 시대의 물 반란들 ▲증동의 물 전쟁으로 나눠 당면한 물 문제를 살펴본다. 하지만 저자의 시선은 오염과 지하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아니라 물을 ‘새로운 석유’나 ‘새로운 황금’으로 인식하며 이윤을 내려는 물기업들을 향한다. “물은 석유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다. 석유와 달리, 물은 대체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는 한 투자전문가의 말에서 기업들이 왜 물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저자는 불공평한 물의 분배가 처음 일어난 때를 유럽 식민주의기로 보면서

남아공과 칠레, 이집트, 네덜, 인도의 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칠레는 독재자 피노체트 시절에 세계 최초로 물 공급의 100%를 민영화했고, 남아공은 ‘물 접근권’ 선언에도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도 뉴델리의 경우 사기업 정수장이 성스러운 갠지스 강물을 전용해 소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 저자는 “목마른 세계가 낳은 대가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마지막 한 톨까지 떨어가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늘어

난 것”이라며 “기업계 입장에서 보면 물은 위태로운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돈벌이 방법을 찾는 필수적인 탐색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기후변화를 멈추자’, ‘사람들을 땅에서 내쫓은 것을 멈추자’, ‘소규모 지역적 해법을 되살리자’ 등 글로벌 물 불평등에 대한 8개의 대안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 문제에 둔감한 한국 사회에 물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경종을 울린다. <나눔의 집·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책과 책임기에 대한 사소하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

독서한담

강명관 지음



‘책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책’은 언제봐도 재미있다. 타인의 독서 경험을 내 것에 견주어 보며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면 금상첨화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 ‘책벌레들 조선에 만들다’ 등으로 유명한 강명관 교수는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다. 40년간 늘 책과 함께 하는 학자이자 애서가인 그는

매달 한 두本是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둘러거려온다. 강교수가 책과 책임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서한담’을 펴냈다. 부제는 ‘오래된 책과 헌책방 골목에서 찾은 심심하고 소소한 책 이야기’다. 책은 ‘그저 그런 책 이야기’, ‘오래된 책들이 남긴 후일담’, ‘한문학자의 연구

실 단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헌책방에서 산 1956년 누군가의 일기장을 들여다본 이야기가 눈에 띈다. 저자는 거금 2만원을 주고 장대성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장을 구입한다. 내용으로 유추해 본 일기 주인공은 경남 진주 근처가 고향인 스무살 정도의 청년. 1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 쓴 일기 내용을 통해 불안한 마음으로 입대를 기다리는 청년의 마음,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 젊은 여성에 대한 치기 어린 애정 등을 살

펴볼 수 있다.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1950년대 중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일상과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어 흥미롭다. 한문학 전공자 답게 ‘금병매’, ‘한양가’, ‘사고전서’ 등 고서에 대한 이야기와 다산 정약용의 책 빌리기와 이덕무의 책 읽기, 신채호의 고서 사랑 등 선조들의 책과 관련한 에피소드도 재미나게 읽힌다. 마지막 장에서는 공부를 업으로 삼은 학자로서 바라본 책과 지식의 풍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휴머니스트·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산소=영국 왕립학회 과학도서상을 수상한 저명한 생화학자 닉 레인은 산소가 지구상 생명의 진화와 노화와 죽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산소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 단 세포에만 머물렀을 것이고, 지구는 화성이나 금성처럼 바다가 증발해버린 황량한 행성으로 남았을 것이다. 책은 환경과학부터 분자의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포괄하며 일련의 증거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한다. <뿌리와이파리·2만8000원>

▲내가 널 파리에서 사랑했을 때=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 제프 다이어의 유일한 연애소설. 삶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 어두고 사는 20대 청춘 앞에 놓인 사람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그 시기이기에 가능한 ‘취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사소한 것이 주는 행복과 살아가면서 맛따르는 소진된 내면에 대해 풀어내던 그만의 시선은 주인공들의 연애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리얼하게 전달 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잡학 콘서트=북한 핵 개발의 최근 흐름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핵실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물론, 미국 및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있어 손안에 쥔 핵을 발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핵의 위험성에 비해 북한 핵에 관한 책이나 핵의 공급을 풀어 줄 만한 별다른 교양서가 없는 실정이다. 책은 핵무기와 핵무기 체계에 대한 기초 상식 및 각국의 핵 실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스타북스·1만5000원>

▲미래의 속도=세계적 컨설팅 그룹 맥



킨지 앤드 컴퍼니의 경제연구조직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25년간 연구한 결과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리처드 스톱스, 제임스 매니카, 조나단 워첵이 공저로 저술한 책은 “25년간 지속되었던 대안정기의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는 4가지 메가트렌드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4가지 메가 트렌드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청림출판·1만6000원〉 ▲실화를 바탕으로 = ‘젊은 거장’ 델핀 드 비강의 작품. 슬럼프에 빠진 베스트셀러 작가 델핀, 델핀을 너무나 닮은 여자 L. 소설은 델핀이 자신과 L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회상하며 시작된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주제를 심리 스릴러 스타일로 빛낸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고,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르노도상’과 ‘고교생이 뽑은 공쿠르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비치·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크레파스가 독=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고민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책. 에반은 새크레파스로 그림을 신나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뚝 크레파스가 두 동강이 나 버리고 새가 물어 가고 바람에 날아가버렸다. 에반은 기발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멋진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간다. <아이위즈·1만2000원>

▲다시 돌아온 조지와 마샤=어린이 그림책의 고전. 제임스 마셜의 우아하고 경쾌한 하마, 조지와 마샤가 그리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쓸쓸할 때 같이 있어 주고,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줄도 아는, 섬세하고 익살스러우며 유쾌한 우정이 평범하지만 감칠맛 나게 펼쳐진다. <논장·9800원>

▲모자를 보았어=존 클라센의 대표작 모자 이야기의 세 번째 책.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는 독자를 목격자, 판단자, 그리고 염탐꾼으로 만든다. 이야기 속 동물들은 서로를 속이며 능청스럽게 뻔뻔하게 행동하고 대화를 하지만, 독자를 속이지는 못한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피노키오가 묻는 말=원작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피노키오가 꿈을 이루기 위해 못되고 못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가느냐에 초점을 맞춘 작품.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어설픈 피노키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꿈을 이루는 과정이란 본디 내 모습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함을 알려 준다. <북·1만28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엄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